

색채기호도와 성격특성 및 개인적 요인과의 관계 연구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r Preference and Personality Traits & Personal Factor

백숙희 · 최종명* · 김인숙**
서원대학교 가정교육과

Bek, Sook hee · Choi, Jong myoung* · Kim, In sook**
Dep. Home Economics Educa., Seowon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r preference and personality traits & personal factor among secondary school girls. Personality traits were measured with Lee et al's Personality Scale. The questionnaire measuring color preference consists of items designed to assess color and clothing color(T-shirt and slacks) preference and color repugnance. These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576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in Chungbuk Province. As statistical analysis, chi-square, F-test and correlation were used.

The result were:

1. The order of preferred colors were white, yellow and green, and the order of repugnant colors were gray, red and red purple.
2. Personality traits was no significant related to color preference and repugnance.
3. Color prefere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age, residential area and type of school. Color repugna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age, residential area, type of school and educational background of mother.
4. Yellow red, yellow and white T-shirt were preferred in spring and autumn, white and blue T-shirt were preferred in summer, and black, gray and red T-shirt were preferred in winter. White and blue slacks were preferred in spring, summer and autumn seasons, and black, gray and blue slacks were preferred in winter.
5.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lor preference and T-shirt color, but was no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lor preference and slacks color.

I. 서론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색채는 인간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심리적, 생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근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의복을 비롯하여 커튼이나 카펫 등 주거환경에 기능적인 요소 이외에 장식적인 요구가 보다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색채의 중요성이 더욱 현저해지고 있다.

색채에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미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고 있으며 색채로부터 받는 인상은 색상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나 색상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색채에 대한 기호경향은 개인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연령, 성별, 생활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감정적 요인 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三浦寬三, 1980).

Cheskin에 의하면 색채의 기호는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인 함수에 기초를 둔다고 하였고, Trey는 색채기호는 머리색의 종류, 도시인과 지방인, 연소자와 연장자, 경제적 수준, 교양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Birren은 지역, 민족, 유행, 연령, 교양 등의 요인이 색채 기호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김영철, 1979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아동기에는 대체로 강렬한 색채를 기호하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침착한 회색조의 색을 기호하고 색의 명도와 채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외향적이고 직접적으로 행동하며 환경에 대한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난색계열을 기호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한색계열을 기호한다(原國政哲, 1975). 또한 지적이고 정서적인 면이 보다 높아짐에 따라 장파장의 색채에서 단파장의 색채로 색채기호가 이행되어 학력이 낮고 저소득층인 사람은 선명한 색채 계통을 기호하게 되지만, 고도의 교육을 받을수록 침착한 색채를 기호하는 경향이 있다(小林重順, 1975). Compton(1963)은 외향적이고 개방적이며 사교적인 사람은 분명한 짙은 색채나 어두운 색을 선택한다고 하였고, 이인자(1976)는 적색을 기호하는 사람은 사려성이 높고 이론적이며 사색적이라고 하였으며 어두운 색을 기호하는 사람보다 더 실천적이고 과단성이 있으며 행동적이라고 하였다. Bjerstedt는 난색을 선택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반면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끝까지 알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며 다소 주위가 산만한 성격특성을 지녔다고 하였고(Rosencranz, 1972에서 재인용), Barret 등은 뚜렷한 색을 선택하는 사람은 보다 직접적으로 반응하며 객관적 사건에 보다 큰 관심을 표시하며, 뚜렷하지 않은 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부의 세계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파악한다고 하였다(Ryan, 1966에서 재인용). 또한 급하고 강렬한 성격은 밝은 색을 좋아하는 반면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강렬하지 않은 색의 옷에 흥미를 갖는다고 하였고, 여러가지 색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정서가 안정되고 외향적이며 지배성이 강한 반면 좋아하는 색이 몇가지 안되는 사람은 그 반대현상이라고 하였다(Pearson, 1950). 한편 박용훈(1980)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색채상징과 성격과의 관계 연구에서 지배성, 책임성, 안전성, 자신

감의 특성은 색채상징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성격특성과 색채상징간에 확실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니수임 등(1986)이 여고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기호색과 성격특성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명도에 따른 차이를 보여 활동성, 사회성이 클수록 밝은색을 더 좋아하며 어두운 색을 싫어하였으며, 기호색과 의복기호색간에는 강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고 기호색은 흰색, 밝은 청색, 밝은 녹색, 혐오색은 밝은 빨강, 어두운 노랑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고·여대생의 기호색은 파랑, 검정, 주황색의 순서이었다고 하였으며(이정순, 1973), 계절에 따른 선호색은 차이가 있어 봄에는 노랑, 여름에는 흰색, 가을에는 밝은 청자색 그리고 겨울에는 검정과 빨강색을 선호한다고 하였다(이혜자, 1972).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발달과 함께 정서적, 사회적, 감정적 발달을 하게 되고 가족이나 다른 어른들로부터 이탈하며 또래집단의 수용과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성적 관심이 증대되어 이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 시기이다. 따라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큰 청소년들은 그들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서 의복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의복은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속 집단에 동조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며(Hurlock, 1973에서 재인용), 여기에 적절한 색채의 의복은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생활에 알맞은 외모를 가꾸어 주는데 중요하므로 의복에서 색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여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격특성 중 색채 기호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동조성, 남향성과 기호색, 혐오색과의 관련성 및 색채 기호도와 연령, 지역 등 개인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기호색과 착용색과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바람직한 의생활을 영위하는데 다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충북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여학생으로 청주시 소재 충북여중, 충북여고, 청주여상과 음성읍 소재 음성여중, 음성고 그리고 청원군 소재 현도상고 등 6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관한 자료수집은 1994년 7월 초에 날씨가 맑은 날을 골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조사 대상자의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584부 중에서 부실기재한 것을 제외한 576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기호색 및 혐오색 조사

기호색 및 혐오색 조사는 회색대지법을 사용하였다. 색지는 한국색채미술사에서 발행된 것으로 <표 1>과 같이 Munsell의 색체계에서 기본이 되는 유채색 10색과 무채색 3색을 5cm × 7cm의 크기로 회색대지(N6)위에 색계통별로 붙여 사용하였다. 한색과 난색의 구분은 빨강, 주황, 노랑은 난색으로, 청록, 파랑, 남색은 한색으로, 연두, 녹색, 보라, 자주 및 무채색은 중성색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색상의 분류

번호	색 명	색상	명도	채도
1	빨강, Red	5R	4.5	14
2	주황, Yellow Red	5YR	6.5	14
3	노랑, Yellow	5Y	8	12
4	연두, Green Yello	5GY	7	10
5	녹색, Green	5G	5	9
6	청록, Blue Green	5BG	4.5	8
7	파랑, Blue	7B	4	8
8	남색, Purple Blue	5PB	3.5	11
9	보라, Purple	6P	4	11
10	자주, Red Purple	5RP	4	11
11	흰색, White	W	9	0
12	회색, Gray	G	5	0
13	검정, Black	BK	2.5	0

2) 성격 특성 검사

이상로 등(1993)의 성격진단검사 중에서 색채기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5가지 성격특성 즉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동조성, 남향성의 총 50문항을 선택 사용하였다. 각 성격특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특성을 의미하며 낮을수록 부정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3) 의복기호색 및 착용색 조사

계절별로 티셔츠와 바지에 대해서 기호색과 주로 착용하는 의복색을 조사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PC*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분석방법은 기호색과 혐오색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성격특성 및 개인적 요인과 색상변인의 유의성은 χ^2 검증, F-test를 하였고, 의복유형별 기호색과 착용색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기호색, 혐오색 및 성격특성의 분포경향

1) 기호색과 혐오색의 분포경향

기호색은 흰색이 17.2%로 가장 많은 기호도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은 노랑(14.4%), 녹색(13.4%), 남색(12.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혐오색의 경우는 회색이 20.8%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빨강(15.3%), 자주(11.7%), 보라(10.9%)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이러한 결과는 여고생은 밝은 남색, 빨강, 노랑, 흰색의 순으로 기호도가 나타났다는 이해자(1971)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흰색이 높은 기호도를 나타낸 것은 조사기간이 여름철이었고 예전부터 우리 민족과 친숙한 색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성격특성

성격특성의 점수분포는 <표 3>과 같다. 지배성, 사회성, 동조성의 실제점수는 성격변인 각각의 총 점수 범위인 0 - 10점이었으나, 안

정성과 남향성은 1 - 9점이었다. 각 성격특성을 6 - 10의 범위를 상집단, 0 - 5범위를 하집단으로 나누어 보면 안정성, 지배성, 남향성은 하집단으로 분류된 응답자의 분포가 높았으나, 사회성과 동조성은 상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호색과 혐오색의 분포경향

번호	색상	N(%)	
		기호색	혐오색
1	빨강	33 (5.7)	86 (15.3)
2	주황	33 (5.7)	11 (2.0)
3	노랑	83 (14.5)	19 (3.4)
4	연두	24 (4.2)	44 (7.8)
5	녹색	77 (13.4)	22 (3.9)
6	청록	27 (4.7)	12 (2.1)
7	파랑	20 (3.5)	59 (10.4)
8	남색	74 (12.9)	11 (2.0)
9	보라	51 (8.9)	61 (10.9)
10	자주	12 (2.1)	66 (11.7)
11	흰색	98 (17.2)	5 (0.9)
12	회색	3 (0.5)	117 (20.8)
13	검정	36 (6.3)	49 (8.7)
계		571(100.0)	562(100.0)

<표 3> 성격특성의 분포경향

집단 (범위)	성격 (%)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동조성	남향성
상(6 - 10)	45.3	38.4	63.4	57.3	14.5
하(0 - 5)	54.7	61.6	36.6	42.7	85.5
M	5.33	4.87	6.26	5.71	3.83
SD	1.77	2.44	2.41	1.75	1.63

성격특성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할 결과는 <표 4>와 같다. 안정성은 지배성, 사회성, 동조성과, 그리고 지배성은 사회성, 남향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배성과 동조성, 남향성과 동조성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성격특성 각 변인간에는 대체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성격특성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성격특성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동조성
지배성	.1379**			
사회성	.2336**	.5319**		
동조성	.1632**	-.1585**	-.0085	
남향성	.0637	.1015*	.0071	-.1840**

* P < .01, ** P < .001.

2. 기호색, 혐오색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1) 색상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기호색과 혐오색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test를 한 결과 기호색과 혐오색 모두 성격특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인자(1976)의 연구에서 좋아하는 색상과 성격특성과는 상관성이 없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한편 기호색과 혐오색을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기호색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혐오색에서는 동조성과 남향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1$). 즉 무채색을 기호하는 집단의 동조성(M: 6.04)이 유채색 기호집단의 동조성(M: 5.5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향성은 유채색을 기호하는 집단(M: 3.94)이 무채색을 기호하는 집단(M: 3.57)보다 높게 나타났다.

2) 난·한색별 기호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난·한색별 기호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색상을 난색, 한색, 중성색으로 나누어 F-test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여기서 보면 성격특성 중에서 동조성과 남향성에서 기호색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다시 말하면 난색계열을 기호하는 사람은 한색이나 중성색을 기호하는 사람보다 동조성이 높고, 한색계열을 기호하는 사람은 난색이나 중성색을 기호하는 사람보다 남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난색을 기호하는 사람은 외향적이고 활동성이 크다고 한 연구 결과(Rosencranz, 1972에서 재인용)와 일치하는 것이며, 녹색을 기호하는 사람보다 남성적이라는 연구 결과(이인자, 1976)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5> 난·한색별 기호도와 성격과의 관계

성격 기호색		성격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동조성	남향성
난색 계열 (R,YR, Y)	M	5.44	4.62	6.12	6.06a	3.60a
	SD	1.89	2.18	2.37	1.53	1.48
한색 계열 (BG,B, PB)	M	5.38	5.02	6.26	5.45b	4.15b
	SD	1.78	2.67	2.53	1.97	1.67
중성색 계열 (GY,G, P,RP, A)	M	5.29	4.91	6.30	5.69b	3.82a
	SD	1.74	2.45	2.39	1.74	1.66
F		0.33	0.80	0.23	3.24*	2.89*

* P < .05

ab는 LSD 검증에 의한 결과이며,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적 차이가 없음.

<표 6> 난·한색별 혐오도와 성격과의 관계

성격 혐오색		성격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동조성	남향성
난색 계열 (R,YR, Y)	M	4.78a	5.12	6.16	5.52	3.95
	SD	1.31	2.41	2.23	1.98	1.86
한색 계열 (BG,B, PB)	M	5.19a	4.46	6.03	5.81	3.80
	SD	1.80	2.43	2.51	1.60	1.56
중성색 계열 (GY,G, P,RP, A)	M	5.44b	4.89	6.31	5.73	3.82
	SD	1.82	2.44	2.42	1.74	1.62
F		4.11*	1.62	0.48	0.51	0.19

* P < .01.

ab는 LSD 검증에 의한 결과이며,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적 차이가 없음.

난·한색별 혐오도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test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여기서 보면 혐오색은 안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다른 성격특성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성색을 혐오하는 사람이 난색과 한색계열을 혐오하는 사람보다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기호색, 혐오색과 개인적 요인과의 관계

1) 기호색과 개인적 요인

기호색과 연령, 거주지역, 학교유형, 모(母)의 교육수준, 월 평균소득 등 개인적 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색상을 6가지 계통색으로 묶어서 χ^2 검증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여기서 개인적 요인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무채색에 대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무채색 중 흰색에 대한 기호도(17.2%)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거주지역, 학교유형에 따른 기호색은 차이가 있게 나타났으나, 모의 교육수준, 월 평균소득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여중생의 기호색은 무채색, 녹색계열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고생은 무채색, 파랑계열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청소년기가 심리적, 육체적으로 가장 성장이 왕성하고 동요가 심한 시기이므로 연령에 따른 기호색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도시지역 여학생의 기호색은 무채, 파랑, 녹색계열의 순이었고, 농촌지역은 무채, 노랑, 녹색계열의 순서이었으며, 학교유형에 따른 기호색은 여고인 경우 파랑, 무채색이었고, 공학인 경우 무채색, 노랑이었다.

일반적으로 색채기호이론에 따르면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침착한 색상을 좋아하고 무지한 사람일수록 선명한 색상을 좋아하여 교육의 정도가 높을수록 장파장의 색채로부터 단파장의 색채로 기호가 이행된다고 한다. 또 문화를 통해서 감정적인 돌파구를 가지고 정서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연한색, 중성색을 좋아하며 교육의 부족과 낮은 수입때문에 정서적인 돌파구를 가질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순색, 특히 난색계통에 뚜렷한 기호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정도와 자녀들의 색채 기호경향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나타

〈표 7〉 기호색과 개인적 요인과의 관계

N(%)

색 상		빨강계열 (R,YR)	노랑계열 (Y,GY)	녹색계열 (G,BG)	파랑계열 (B,PB)	보라계열 (P,RP)	무채계열 (W,G,BK)	계	χ^2
개인적 요인	연령	14(7.3) 52(13.5)	40(20.9) 67(17.4)	44(23.0) 60(15.6)	24(12.6) 70(18.2)	23(12.0) 40(10.4)	45(23.6) 92(23.9)	190(33.2) 381(66.8)	12.22*
	계	66(11.5)	107(18.6)	104(18.1)	94(16.2)	63(10.9)	137(23.8)	571(100)	
거주 지역	도시	28(9.7)	44(15.2)	56(19.3)	57(19.7)	38(13.1)	66(22.8)	289(50.3)	14.39*
	농촌	38(13.3)	63(22.0)	48(16.8)	37(12.9)	25(8.7)	71(24.8)	282(49.7)	
학교 유형	여고	20(10.4)	34(17.7)	11(5.7)	21(10.9)	45(23.4)	58(30.2)	189(50.6)	20.75*
	공학	32(16.6)	11(5.7)	18(9.3)	27(14.0)	37(19.2)	59(30.6)	184(49.4)	
부모의 교육 수준	국졸	34(18.9)	13(7.2)	7(3.9)	30(16.7)	40(22.0)	50(27.8)	174(31.5)	43.31*
	중졸	33(16.9)	16(8.2)	13(6.7)	16(8.2)	40(20.5)	72(36.9)	190(34.4)	
고졸	22(13.0)	32(18.9)	10(5.9)	20(11.8)	41(24.3)	42(24.9)	167(30.3)		
대졸	6(28.6)	2(9.5)	3(14.3)	4(19.0)	2(9.5)	4(19.0)	21(3.8)		
계	97(16.8)	63(10.9)	34(5.9)	70(12.2)	127(22.0)	171(29.7)	552(100)		
월 평균 소득 (만 원)	50미만	7(21.2)	4(12.1)	5(15.2)	2(6.1)	7(21.2)	7(21.2)	32(5.7)	32.78
	51-100	34(17.1)	16(8.0)	9(4.5)	28(14.1)	42(21.1)	65(32.7)	194(34.5)	
	101-150	35(17.5)	18(9.0)	13(6.5)	25(12.5)	37(18.5)	67(33.5)	195(34.7)	
	151-200	8(10.8)	14(28.9)	3(4.1)	10(13.5)	22(29.7)	15(20.3)	72(12.8)	
	200이상	9(20.2)	9(20.0)	2(4.4)	3(6.7)	12(26.7)	9(20.2)	44(7.8)	
계	103(17.9)	96(16.7)	55(9.5)	74(12.8)	118(20.5)	119(20.7)	537(100)		

* P < .05

났으며,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여유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가정의 월 평균소득과의 관계에서도 의미있는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가 고도 산업 사회로 발달하고 그에 따라 생활양식과 사회 계층구조가 변화되고 교통수단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유행의 파급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색채기호가 공통적인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2) 혐오색과 개인적 요인과의 관계

혐오색과 연령, 거주지역, 학교유형, 부모의 교육수준, 월 평균소득 등 개인적 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색상을 6가지 계통색으로 묶어서 χ^2 검증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여기서 개인적 요인에 관계없이 전체적

으로 무채계열에 대한 혐오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무채색 증 회색에 대한 혐오도 (20.8%)가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혐오색은 월 평균소득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여중·여고생 모두 무채계열을 가장 혐오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은 빨강계열, 고등학생은 보라계열을 혐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와 여고인 경우는 무채계열, 보라, 노랑의 순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와 남녀공학인 경우는 무채색, 보라, 빨강계열의 순으로 혐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국졸과 중졸인 경우 무채계열과 보라계열을, 고졸은 무채계열과 노랑의 순서로 혐오하

였고, 대졸의 경우 노랑계열을 가장 혐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흰색과 남색을, 겨울에는 검정색, 회색, 남색을 기호하였다. 여기서 무채색과 아울러 남색

<표 8> 혐오색과 개인적 요인과의 관계

N(96)

색 상		빨강계열 (R,YR)	노랑계열 (Y,GY)	녹색계열 (G,BG)	파랑계열 (B,PB)	보라계열 (P,RP)	무채계열 (W,G,BK)	계	χ^2
연령	중 고	45(23.6) 52(13.5)	18(9.4) 45(11.7)	5(2.6) 29(7.5)	22(11.5) 48(12.5)	45(23.6) 82(21.3)	54(28.3) 117(30.4)	189(33.6) 373(66.4)	16.31*
	계	97(16.8)	63(1.09)	34(5.9)	74(12.8)	127(22.0)	171(29.7)	562(100)	
거주 지역	도시 농촌	42(14.5) 55(19.5)	48(16.6) 15(5.2)	15(5.2) 19(6.6)	31(10.7) 39(13.6)	65(22.4) 62(21.7)	84(29.0) 87(30.4)	285(50.7) 277(49.3)	21.65**
	계	97(16.8)	63(1.09)	34(5.9)	74(12.8)	127(22.0)	171(29.7)	562(100)	
학교 유형	여고 공학	23(12.0) 29(15.0)	28(14.6) 39(20.2)	34(17.7) 26(13.5)	41(21.4) 29(15.0)	26(13.5) 14(7.3)	40(20.8) 52(26.9)	192(50.1) 189(49.9)	14.78*
	계	52(13.5)	67(17.4)	60(15.6)	70(18.2)	40(10.4)	92(23.9)	381(100)	
부모의 교육 수준	국졸 중졸 고졸 대졸	19(10.6) 22(11.3) 20(11.8) 4(19.0)	38(21.1) 35(17.9) 28(16.6) 4(19.0)	40(22.2) 32(16.4) 29(17.2) 2(9.5)	21(11.7) 34(17.4) 34(20.1) 4(19.0)	18(10.0) 24(12.3) 17(10.1) 1(4.8)	42(23.3) 46(23.6) 40(23.7) 6(28.6)	180(31.3) 195(33.9) 169(29.3) 21(3.6)	15.10
	계	66(11.5)	107(18.6)	104(18.1)	94(16.3)	63(10.9)	137(23.8)	565(100)	
월 평균 소득 (만원)	50미만 51-100 101-150 151-200 200이상	5(15.2) 29(14.6) 20(10.0) 8(10.8) 3(6.7)	10(30.0) 34(17.1) 35(17.5) 12(16.2) 11(24.4)	5(15.2) 44(22.1) 39(19.5) 5(6.8) 4(8.9)	4(12.1) 27(13.6) 32(16.0) 13(17.6) 13(28.9)	3(9.1) 17(8.5) 31(15.5) 6(8.1) 3(6.7)	6(18.2) 47(23.6) 40(20.0) 29(39.2) 11(24.4)	33(5.7) 199(34.5) 200(34.7) 74(12.8) 45(7.8)	43.56
	계	66(11.5)	107(18.6)	104(18.1)	82(14.2)	43(7.5)	237(41.1)	551(100)	

* P < .01, ** P < .001

4. 의복기호색과 착용색채 경향

의 기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여학생의 청바지에 대한 기호도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 의복기호색

의복유형에 따른 기호색을 여학생이 즐겨 착용하는 의복유형인 티셔츠와 바지에 한하여 살펴 보았는데, 계절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티셔츠의 경우 기호색을 보면 봄·가을에는 주황, 노랑, 흰색을, 여름에는 흰색과 남색을, 겨울에는 검정색을 기호하였는데, 이는 계절의 느낌과 맞는 색채를 기호하는 현상이라고 풀이된다. 바지는 봄·가을과 여름에는

2) 착용색

의복유형에 따른 착용색을 여학생이 즐겨 착용하는 의복유형인 티셔츠와 바지에 대하여 계절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티셔츠의 색채는 봄·가을에는 흰색을 많이 착용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노랑, 빨강, 파랑색의 순으로 착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름에는 흰색, 파랑색의 순으로, 겨울에는 검정, 흰색, 빨강색의 순서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

<표 9> 계절별 티셔츠와 바지 기호색

유형	계절		빨강	주황	노랑	연두	녹색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흰색	회색	검정	계
	봄 가을	N %														
티셔츠	봄 가을	N %	48 8.5	104 18.4	104 18.4	66 1.7	42 7.4	11 1.9	16 2.8	16 2.8	20 3.5	15 2.7	103 18.2	13 2.3	7 1.2	565 100
	여름	N %	33 5.8	28 4.9	32 5.6	27 4.8	38 6.7	15 2.6	37 6.5	103 18.1	9 1.6	0 0	233 41.0	6 1.1	7 1.2	568 100
	겨울	N %	62 11.1	28 5.0	27 4.8	6 1.1	10 1.8	8 1.4	10 1.8	33 5.9	46 8.2	26 4.6	61 10.9	63 11.3	180 32.1	560 100
바지	봄 가을	N %	18 3.2	22 3.9	24 4.3	18 3.2	13 2.3	12 2.1	70 12.5	115 20.5	8 1.4	10 1.8	135 24.1	39 7.0	76 13.6	560 100
	여름	N %	16 2.8	9 1.6	9 1.6	16 2.8	16 2.8	16 2.8	63 11.2	107 19.0	4 0.7	5 0.9	268 47.5	19 3.4	16 2.8	564 100
	겨울	N %	5 0.9	3 0.5	1 0.2	2 0.4	6 1.1	6 1.1	26 4.6	45 8.0	8 1.4	5 0.9	27 4.8	49 8.7	382 67.6	565 100

<표 10> 계절별 티셔츠와 바지 착용색

유형	계절		빨강	주황	노랑	연두	녹색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흰색	회색	검정	계
	봄 가을	N %														
티셔츠	봄 가을	N %	61 11.4	32 6.0	91 17.0	20 3.7	30 5.9	1 0.2	52 9.7	7 3.2	13 2.4	4 7.4	187 34.8	8 1.5	21 3.9	52 9.7
	여름	N %	30 5.4	14 2.5	24 4.3	7 1.3	17 3.1	1 0.2	76 13.7	3 2.4	4 0.7	1 0.2	345 62.4	5 0.9	16 2.9	76 13.7
	겨울	N %	65 12.3	9 1.7	20 3.8	0 0	8 1.5	0 0	18 3.4	36 6.8	22 4.2	4 0.8	77 14.5	32 6.0	239 45.1	18 3.4
바지	봄 가을	N %	5 0.9	2 0.4	17 3.1	5 0.9	4 0.7	2 0.4	363 64.9	20 3.6	3 0.5	2 0.4	68 12.2	9 1.6	59 10.6	363 64.9
	여름	N %	11 2.0	6 1.1	16 2.9	8 1.4	8 1.4	1 0.2	253 45.8	16 2.9	4 0.7	1 0.2	197 35.7	11 2.0	20 3.6	253 45.8
	겨울	N %	11 2.0	0 0	4 0.7	0 0	3 0.5	0 0	159 28.4	18 3.2	2 0.4	2 0.4	10 1.8	12 2.5	338 60.5	159 28.4

나서 티셔츠의 색은 계절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지는 전체적으로 봄 때 파랑색을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름에는 흰색, 겨울에는 검정색의 착용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청색의 착용도가 계절에 관계없이 크게 나타난 것은 학생들의 바지가 대부분 진(Jean)으로 구성된 것에 기인한

다고 볼 수 있겠다.

3) 기호색, 의복기호색 및 착용색과의 관계
 <표 9>와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여름철 바지와 티셔츠에 대한 의복기호색과 착용기호색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티셔츠와 바지의 의복기호색은 흰색이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남색으로 나타났는데, 착용색도 역시 흰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남색과 유사한 파랑이어서 여름철 티셔츠와 바지에 대한 의복기호색과 착용색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기호색과 착용색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름철 티셔츠와 바지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여기서 보면 티셔츠에서는 기호색과 착용색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바지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티셔츠와 같은 상의의 색채를 고를 때에는 대체로 자신의 색채 기호도를 그대로 반영하여 구입하고 있으나, 바지구입시 기호색을 선택하는 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제한점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 11> 기호색과 착용색과의 상관관계

변 인	착 용 색	
	티 셔 츠	바 지
기 호 색	.1277*	.0569

* P < .05

IV. 결론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여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색채기호 및 혐오경향을 분석하고 기호색, 혐오색과 성격특성 및 개인적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기호색과 착용색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여학생의 기호색은 흰색이 현저하게 높았으며, 노랑, 녹색, 남색의 순이었고, 혐오색은 회색, 빨강, 자주, 보라의 순이었다.
2. 색상에 따른 기호색 및 혐오색과 성격특성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난·한색 계열에 따른 기호색은 동조성과 남향성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혐오색의 경우 안정성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3. 기호색은 연령, 거주지역,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혐오색은 연령, 거주지역, 학교유형, 母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의복의 계절별·유형별 기호색채 경향을

보면 티셔츠는 계절에 따라 차이를 보여 봄·가을에는 주황색, 노랑, 흰색을, 여름에는 흰색과 남색, 겨울에는 검정색과 회색, 빨강색이었고, 바지는 봄·가을과 여름에는 흰색과 남색을, 겨울에는 검정, 회색과 남색의 기호도가 높았다.

5. 티셔츠의 착용색은 계절에 따른 차이를 보여 겨울에는 검정, 봄과 가을, 그리고 여름에는 흰색이었고, 바지의 착용색은 계절에 관계없이 파랑과 무채색이었다.

6. 티셔츠의 경우 기호색과 착용색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바지에서는 기호색과 착용색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충북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조사도구인 색상지를 Munsell에 의한 기본색 10색과 무채색 3색을 사용한 관계로 색채의 다양성이 결여되었으며, 이들 색상을 몇 계열로 묶어 통계처리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확대 해석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색상에 대해서 의복유형에 따른 기호색 및 상·하의에 대한 기호배색 그리고 직물무늬에 따른 배색과 성격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김영철(1979), 색채응용 및 기호심리에 관한 조사연구-대구지방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수임·한명숙(1986), 여고생의 복색선호와 성격특성과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1), 37-45.

박용훈(1980), 색채상징과 성격,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자(1976),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상관관계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14(2), 69-83.

이정순(1973), 의생활과 색채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논문집, 제 7집, 159-166.

이혜자(1971), 한국인의 색채기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제 11집, 345-361.

- 原國政哲(1975), 色彩の使い方, 東京:理工學社, 11-1-11-4.
- 小林重順(1975), 色彩心理學, 東京:誠信書房, 142.
- 三浦寬三(1980), 色彩學概論, 東京:倉文社, 127.
- Compton, N. H.(1963), Personal Attributes of Color and Design Preferences in Clothing Fabrics, *J. of Psychology*, 54(1), 191-195.
- Hurlock, E. B.(1973), Adolescent Development, 4th Ed., N.Y.:Mcgrow Hill Book Co., 165-168.
- Rosencranz, M. L.(1972), Clothing Concepts : A Social-Psychological Approach, N.Y.: Macmillan Company, 31-33.
- Ryan, M.S.(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92, 269-270, 282.
- Pearson, L. H.(1950), Teen Ager's Preference in Clothes, *The J. of Home Economics*, 801-803.